

2021년 제2차 이사회 열려

7월 5일(월) 오전 11시에 사우회 2021년도 제2차 이사회가 열렸다. 21명의 임원 중 18명이 참석해 ZOOM 방식의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이사회는 의결할 안건이 없는 관계로 간담회 성격을 띤 회의였다. 차인태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초 식사모임을 계획했었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부득이 영상으로 만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모두들 건강하신 듯해 반갑고 감사하다. 하루 빨리 형편이 좋아져서 대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

했다. 이어서 김상옥 상임부회장이 발전기금 접수현황과 부동산중개마당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함께 문화보험과 사우회의 상반기 실적을 설명했다.

참석한 모든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인사말을 나눴고 짙막한 근황 소개도 있었다.

이번 영상회의도 김승월 이사의 사전 점검과 현장 진행 덕분에 깨끗한 영상과 끊김없는 오디오 상태로 원활하게 진행됐으며, 차 회장과 임원들은 김승월 이사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발전 기금을 내주신 분들(5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 | | |
|------------------|----------------|----------------|
| • 성경환(ANN) 100만원 | • 김동진(보도) 50만원 | • 서동식(관리) 20만원 |
| • 구본홍(보도) 100만원 | • 김동환(기술) 30만원 | • 이창호(기술) 20만원 |
| • 최성금(관리) 100만원 | • 박종진(편제) 30만원 | • 김준수(기술) 20만원 |
| • 이강식(관리) 100만원 | • 김태현(편제) 30만원 | • 익명(보도) 5만원 |



성경환



구본홍



최성금



이강식



김동진



김동환



박종진



김태현



서동식



이창호



김준수

『사우회 부동산 중개 마당』 활성화 논의

6월 14일(월) 오후 사우회 회의실에서는 지난 호 사우회보에서 박진석(기술)회원이 제안한 ‘부동산 중개 마당’에 공감하는 일부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두 시간여의 담화를 통해 이들은 ‘사우회 부동산 중개 마당’이라는 이름의 단독방을 개설하여 더 많은 사우회원들의 참여를 권유할 것과 지속적인 부동산 정보교환, 노하우 전수 등 활성화 방안을 공식화했다.

또한 사우회 내 활동은 당분간 동

호회 형태로 할 것이며 사우회보와 카페를 통해 사우회원들과의 교류를 넓히기로 사무처와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박진석(기술), 최호룡(편제), 김태현(편제) 회원들과 사우회 최 천(기술)이사 등이다. 그 밖에도 ‘부동산 중개 마당’에 관심을 표한 유시복(관리, 공인중개사) 회원과 김성규(관리, 변호사) 회원은 다음 번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다.



회/원/동/정



▶정길화(편제)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에 취임했다. 국
제문화교류진흥원
은 외국과의 문화교류 및 협력사업
수행 전담기관으로 임기는 2024년
까지다.



▶김기도(보도)
5월 28일 대한민
국 헌정회 원로회
의 위원으로 추대
됐다. 김 회원은 제
14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그동안 헌정회 정책연
구위원회 정책실장으로 일했었다.



▶박기병(보도)
6월 21일 국가
보훈처가 주관한
'2021년 호국보훈
의 달 정부 포상식'
에서 6.25 전쟁 참
전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 회원은 이날 수상자 중 최고령 수
상자였다.



▶김낙현(관리)
동화인협동조합
F&B 2호점 <동
천>을 다산동에
개장한다. 정통
일식당日食堂 <동
천>은 음식점 역할을 넘어 지역사
회의 비즈니스 허브와 갤러리 역할
도 겸하게 된다.



▶구영회(보도)
지리산에 파묻혀 산
세월이 그새 10년.
여섯 번째 수상집
'가장 큰 기적, 별일'



▶송일준(편제)
광주MBC 사장 임
기를 마치고 곧장
제주도로 가서 '제
주도 한 달 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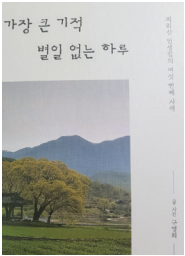


▶이우용(편제)
5월에 『창의력: 생
각을 발견하라』를
발간했다. 이 회원
은 라디오PD, 춘
천MBC 사장 등을



▶유혜자(편제)
<유혜자의 음악에
세이> 『음악의 페
르마타』를 출간했
다. 1990년대 후반
부터 클래식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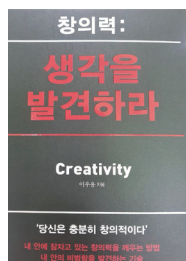
없는 하루'를 출간
했다. 코로나로 일
상을 잃어버린 사
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싶어서 썼다.



하며 쓴 글들을 5
월에 책으로 출간
했다. 송 회원은 광
주대학교 석좌교수
로 재직 중이다.



역임했으며 현재
호서대학교 혁신융
합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과 문학을 접목하여
명곡들에 숨겨진 진
실을 찾아보는 여섯
번째 저서다.



동/호/회/소/식

한문동호회(회장 양진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권
혁화 훈장의 지도로 한문공부
를 계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라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학에 여념이 없
다. 7월 15일부터는 매주 목요
일에 이진세 훈장의 지도로 한문
상급반 강의를 시작된다. 관심있는 회
원들은 권혁화 훈장(010-3739-0889)에게 문의 바란다.



골프동호회(회장 김용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3월 이후 계속 월례모임을 갖
고 있다. 충주에 있는 대영힐
스골프장과 6팀으로 年부킹을
했으며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라운딩을 펼친다. 참가 인원
확정은 매월 넷째 주에 선착순
24명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참가에 대한 문의는 정경석 부회장(010-
6233-1313)에게 연락하면 된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이선영(ANN)
1984년 아나운서
입사. 1998년 퇴
사. 사회학박사.
영국 국립보건서
비스에서 근무 중.



윤만석(관리)
1984년 입사. 관재
부장, 자산개발국
장, MBC꿈나무축
구재단 사무처장
등 역임.



김연중(편제)
1983년 영상국
제작지원부 입사.
MBC프로덕션,
MBC C&I 부국장
등 근무.



강자중(기술)
1986년 입사.
편집부, 보도기술
부, 종합편집부 등
에서 근무. 2021년
6월 정년퇴직.



김선주(관리)
1988년 입사.
콘텐츠제작국
부국장, 인천
총국장 근무.
2020년 정년
퇴직.



최부영(관리)
1982년 입사.
R편성기획부,
정보시스템팀,
총무부 등 근무.
2021년 6월
정년퇴직.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
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
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
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
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

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경조사항

팔순: 이성해(보도) 42.8.1 김동오(업무) 42.8.2 금기우(기술) 42.8.19
최양목(편제) 42.9.23 이연현(고문) 42.9.25 편일평(보도) 42.9.30
고희: 신명현(업무) 52.8.3 임무영(관리) 52.9.13 한승영(기술) 52.9.21
회갑: 안남례(관리) 61.8.8 최재혁(ANN) 61.9.7
결혼: 심승보(보도) 딸 5.29 배수한(관리) 차남 6.26 김동환(기술) 차남 6.26
정보균(관리) 차남 6.19 김준수(기술) 아들 6.12 임인숙(관리) 딸 7.24
부음: 김철영(편제) 모친상 6.30 한박무(보도) 장모상 6.24
노성대(보도) 배우자상 6.19 김우룡(편제) 장모상 6.20
심재영(편제) 모친상 6.15 백종문(편제) 배우자상 6.12
이연현(편제) 모친상 6.11 안혜란(편제) 배우자상 6.10
양승원(기술) 장모상 6.8 박병주(관리) 모친상 5.9
김상진(보도) 모친상 7/9

연회비

2021년: 이상원 김철영 조정구 이원형 김종창 김상호 오명균 김종연
이연현 박종진 황수석 이무영 채규익

2024년: 양승원

주소 / 전화번호 변경

편제: 이인재 경기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65번길 67(봉서리)
이명숙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2 라길 9(창천동)
권혁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77번길 20(효성동, 태산아파트)
류달훈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닭알집골길 118
차재영 경산시 경안로56길 14(중방동, 중방e편한세상3단지)
보도: 엄기영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0(서초동, 삼풍아파트)
임흥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688 (장항동, 코오롱레이크폴리스2)
관리: 황형정 경기 하남시 대청로 50(신장동, 백송한신아파트)
나일수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길 25-10(계산동, 신다우빌라)
대구: 김광안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14길 84(지산동)심블하이츠
전주: 주규만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2로 144(장기동, 초당마을주공아파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준현(업무)
5월 5일 별세.
향년 86세. 1964
년 업무국 입사.
1981년 업무부장
퇴사 후 한국방송
광고공사 대구지사장 역임.



박영일(편제)
6월 2일 별세.
향년 80세. 1966년
라디오PD 입사. 방
송연구소장, 기획실
장, 경영이사, 1993
년 포항MBC 사장 등 역임.



이무영(편제)
6월 3일 별세.
향년 76세. 1971년
TV제작국 미술부
입사. 1997년 영상
미술국 영상1팀에
서 명예퇴직.



김영호(관리)
6월 26일 별세.
향년 79세. 1966년
입사. 비상계획부
근무. 1994년 정년
퇴직.

김승원칼럼

거울



김승원
(편제·이사)

어머니 얼굴이 슬퍼 보였다. 삼 년 전 세상 떠난 어머니, 고운 사진 골라 거실에 걸었다. 늘 환하게 웃는다고 생각했는데 슬퍼 보이다니. 잘 못 본 거 아닌가 다시 올려다 봤다. 어머니는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다. 불현듯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내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보니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사진을 유심히 다시 살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어머니는 여전히 환한 얼굴이었다. 그날은 왜 슬프게 보였을까? 그날 전후 일을 곰곰이 되짚다가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요즘 딸이 운영하는 조그만 회사에서 일을 거두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 경제 지표가 나빠졌다는 소식에 심란했다. 앞날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될 아이디어가 없을까 해서 디자인 담당과 의논하려고 담당 여직원을 내 방으로 조용히 불렀다. 몇 달 전 경력직으로 입사한 분이다. 잔뜩 긴장해서 들

어 왔다. 이맛살 찌푸린 듯 표정이 어두웠다. 서먹서먹한 사이였지만 인상만큼은 밝은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 듯했다. 할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돌려보냈다.

생각해보니, 그 두 사건이 엇비슷하게 일어났다. 요즘 그 직원 얼굴은 예전처럼 밝다. 그때만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이런저런 걱정에서 잊눌리다 보니 세상은 어둡고, 주위 사람도 침울해 보였나 보다. 도둑 눈에는 도둑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니 내 마음에 따라 달리 보였나 보다.

‘상대방이 내 마음의 거울’이란 말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를 본다는 뜻이다. 미운 사람은 밉게 보이고, 이쁜 사람은 이뻐 보인다. 우리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계란 같이 생겼다고 구박한다.”는 말이 있다. 제 아무리 예뻐도 미워하는 사람 눈에는 밉게만 보인다. 상대방이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춰주기도 한다. 어디 가서 무뚝뚝하게 굴어 보면 금방 알게 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데 어느 누가 상냥하게 대해줄까? 못나게 굴면 못나게 대접받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친절하게 응대 받는다. 내

게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다. 인간관계에서 주고받음은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 곧바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시차를 두고 뒷날 이뤄지기도 한다. 돌이켜보면, 누군가에게 심하게 대해주었다가 훗날 그만 나도 당한 적이 꽤 있다. 내가 추겨주었던 사람은 뒷날 나를 추겨주었고, 내가 통박한 사람은 기회 되었을 때 나를 통박했다. 누군가에게 맞서 말하면 그도 훗날 나에게 맞서 말할 게다. 마음에 새겨 두고 그리 할 수도 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리 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의 뇌에는 거울뉴런(mirror neuron)이 있어서 남의 동작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한다고 한다. 내가 하품하면 함께 있는 사람 중 누군가도 하품한다. 내가 팔짱 끼면 함께 있는 사람 중 누군가 따라서 팔짱을 낀다. 네댓 명 모인 자리에서 실험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나의 동작을 누군가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고 있음을. 마찬가지로 나 역시 누군가의 동작을 나도 모르게 따라 하기도 한다. 지하철에서 맞은 편에 앉은 사람이 다리를 꼬면 나도 모르게 다리를 꼬기도 한다.

유아는 거울처럼 부모를 따라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익히게 되고, 훗날 남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게 된다. 거울뉴런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게도 한다. 상대방과 느낌을 같이 하는 공감능력도 거울 뉴런이 반응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자폐환자들에게는 거울뉴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자폐환자는 상대방과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쉽지 않고,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호감을 느끼는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는 행위를 심리학에서 거울효과(Mirror Effect)라고 한다. 상대가 자신을 따라 하면 친근감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호감이 낮아진다. 상대방 따라서 웃으면 같이 웃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기만 해도 호감을 줄 수 있다. 거울효과는 서로 잘 통하는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사람끼리 같이 있으면 눈의 움직임, 호흡과 말의 빠르기가 비슷해진다 고 한다. 금슬 좋은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비슷해지는 것도 그래서인가 보다.

인터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길화(편제) 원장



▶적임자가 중책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의 소개와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03년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습니다. 이후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으로 바뀌었다가 2018년 문체부가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발족했습니다. '국제문화 교류'와 '한류 활성화'를 시너지로 승화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05년 멕시코 이민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멕시코 현지에서도 방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기획단계부터 이를 구상해서 마침내 멕시코 카날온세(채널11) 방송에서 방영을 했는데 호평을 받아 3방까지 했습니다. 또 2011년에 MBC 중남미지사장 겸 특파원으로 부임해서 콘텐츠비즈니스와 특파원으로서의 취재, 제작 업무를 같이 수행했는데 이 시기에 한류와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MBC 재직 중에 국제문화교류와 한류 활성화의 일선에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진흥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른바 'K-문화'가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류의 전개 과정을 보면 '한류 1.0', '2.0' 및 '3.0'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한류 1.0은 드라마 중심, 2.0은 케이팝 중심, 그리고 3.0은 케이컬처입니다. 한류 3.0에는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콘텐츠가 모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한류 1.0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드라마 선풍 즉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드라마가 주도했고 지역적

으로는 동아시아가 중심이 됐습니다. 한류 2.0은 케이팝이 주도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불이 붙었고 2011년 SM의 파리 공연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0을 문화의 근접성 이론으로 설명한다면 2.0은 혼종성 나아가 초국적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류 3.0은 향후 한류가 나아갈 지향점을 담고 있습니다. 요컨대 한류는 기존의 대중문화가 보여주지 못한 우리 콘텐츠의 완성도, 재미를 기본으로 케이팝의 경우 새로움, 친근함, 개방성 등이 매력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남미에 지사장 겸 특파원으로 있을 때 현지의 케이팝 팬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 모두 "케이팝은 새롭다, 다르다"는 점을 먼저 꼽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만의 포래문화로서 이른바 서브컬처subculture를 이루고 있음을 봤습니다. 드라마의 경우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건강한 재미를 높이 평가하였고 몰입할 수 있는 드높은 완성도, 대리만족 등을 꼽고 있었습니다.

▶한류의 세계화가 어떤 부문(음악, 영화, 음식)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부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균형있고 다양하게 '한류의 세계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요.

최근 들어서 한류를 거론하면 BTS, 블랙핑크, 이소파 등이 주도하는 케이팝과 <기생충>과 같은 한국영화 등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굿닥터>, <복면가왕> 등이 주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리메이크 즉 포맷수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케이 푸드는 영화나 드라마, 뮤직 비디오에 등장하는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에 힘입은 측면이 큼니다. 드라마에서 케이팝으로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국 콘텐츠로부터 한국문화에 대한 친근감이 생기고 이것이 한국 전반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한류의 효자는 게임과 웹툰입니다. 2020년 상반기 한류 콘텐츠 수출액을 보면 약 50억 8천만달러(약 5조 5753억원) 중 수출 비중의 72.4%를 차지한 게임은 36억 8천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국내 콘텐츠산업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화(3천113만달러·약 342억원)는 K-웹툰의 글로벌 진출과 지식재산권 사업 확장 가속화에 힘입어 전 장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콘텐츠산업의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좋아하는 장르부터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내수 기반 즉 국내에 팬덤이 없는 장르가 해외에 어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인기있는 분야가 선도하고 그로부터 콘텐츠의 다양성을 모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문화교류가 되려면, 그런 문화를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지역민들의 특성 등을 함께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문화는 그 사회의 물적 토대와 무관하지 않고 시대정신에 연결되어 있는데, 좋은 콘텐츠에는 그런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방송사와의 협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의 사업을 기획단계부터 동행 취재하여 예능, 교양 등의 프로그램에서 이를 방송한다면 역사적 배경이나 지역의 특성 등을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런 작업은 현지 방송사와 콜라보도 가능하고 따라서 방송의 국제교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방송사와는 이미 MOU 체결도 추진 중에 있어 불원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있는지요.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호평받는 사업과 행사로는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캐스트(CAST)' 그리고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는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재외 한국문화원, 해외 문화예술 기관들과 협력해 국내

우수 공연과 전시를 해외 현지 수요에 맞게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리얼 디엠지(Real DMZ)' 프로젝트 전시는 아프리카 최초의 DMZ 작품 전시로 호평받았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메가 서울, 40년-서울에서 살으십시오> 사진 전시는 현지의 반응이 좋아 2주간 전시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캐스트(CAST)'는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한류콘텐츠와 기획개발-홍보-유통 전 단계에 걸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총 68개의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전통설화에서부터 애니메이션, 순수, 대중예술 아티스트와 e스포츠 등입니다. 이 중 역주행의 아이콘 브레이브걸스를 주인공으로 한 웹툰 <용감한 언니가 도와줄게>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기초지자체와 민간 문화예술 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콘텐츠화해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시작된 후 2020년까지 21개 지역 25개의 국제교류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올해는 8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접근 방식도 기존의 공연, 체험, 워크숍을 비롯해 비대면 교류를 위한 VR 전시, 온라인 컨퍼런스, 레지던시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각 지자체나 기관에서 중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문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문화의 메카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편집장>



가장 큰 기적, 별일 없는 하루



구영회(보도)

■ 작은 일에 기뻐하라

혼자 산마을에서 지내니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특별한 일 없이 송두리째 텅 비어 있는 날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신통하게도 날마다 화수분처럼 무엇인가로 채워진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삶의 물꼬를 따라 삶이 알아서 흐른다. 귀향 초기에는 날이 밝으면 '오늘은 무슨 좋은 일 없을까?'하면서 들뜬 기대심리가 슬그머니 작동했다. 하지만 10년 넘게 지내니 지금은 많이 텅텅 해지고 담백해졌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중뿔난 것 없는 하루하루는 그러나 무의미하게 허비된 것은 아니었다. 그 세월 속에서 내 인생길의 군더더기와 찌꺼기, 더께 같은 것들이 차츰 떨어져 나가고 걸러지고 씻겼다. 내 삶의 매우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원형질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어떤 것들이 그야말로 부질없는 맹탕인지 저절로 알게 되었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소소한 일들을 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고 쏘다니고, 안부가 궁금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고, 숲이나 강변에 앉아 모든 감각을 편안하게 열어서 그저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저항없이 순하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과 몸뚱이가 별다른 탈없이 하나가 되어 '행주좌와 行住坐臥 어묵동정 語默動靜'을 무난하게 잘하며 지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었다.

"탈 없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있든가. 무탈함은 그 자체가 큰 축복이고 가피였다.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 '별일 없느냐' '고 물을 수 있고 '별일 없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상태가 최상

아닐까. 인생에서 '별일'은 적을수록 없을수록 좋은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다. 온 세상을 모조리 휩쓸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은 '별일 없음'의 소중함을 가장 확실하게 일깨웠다. 이렇게 지내는 나에게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영화 한 편이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파리에서 무명 배우로 별 볼일 없이 매우 무료하게 살아가는 주인공 '엠마'는 스스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던 끝에 자기 생일이 돌아오는 날 자살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일으켜 보려고 스스로 직접 작성한 '나 자신에 대한 충고' 메모지를 읽는다.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엄청 기쁜 일이 없다면 작은 일에 기뻐하라"

산자락 마을에서 혼자 무척 심심하게 지내는 나에게 이 짧은 한마디는 깊이 꽂혔다. 그래서 이 충고를 나의 오늘 하루에 적용하면서 검증해 보기로 했다. 거의 날마다 하루가 통째로 비어 있는 처지에 '엄청 기쁜 일'이라곤 있을 턱이 없었다. 그렇다면 '작은 일에 기뻐하라'로 초점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기뻐할 만한 '작은 일'이나 '좋은 일'이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재미 삼아 헤아려 보았다. 세어 보니 꽤 많았다. 아니, 뜻밖에 수두룩했다.

1. 장작불 땀 구들방에서 따뜻하게 푹 잘 자고 탈 없이 잘 됐다.
2. 토마토가 아직 7개 남아 있다.
3. 살짝 얼음기 땀 토마토는 부엌칼에 사각사각 잘 베어졌다.
4. 달걀들이 아직 빼곡하다.
5. 오늘 아침 토스트는 타지 않고 잘 구워져 바삭바삭 맛이 좋았다.
6. 오늘 햇볕이 꽤해서 마당 빨랫줄에 내다 건 이부자리가 뽀송뽀송하게 잘 마를 것 같다.
7. 아까부터 마당에 앉아 채근하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내주었다.
8. 고양이가 먹다 남긴 먹이를 물까치가 날아와 깨끗이 먹어 치웠다.
9. 딸이 선물한 커피머신에서 모닝 커피 한잔을 뽑아 마시니 개운했다.
10.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다.
11. 실내용 슬리퍼 밑바닥을 오랜만에 비누로 말끔히 닦았다.
12. 음식 쓰레기를 내다 버리면서 재를 뿌어 잘 덮었다.
13. 가까운 후배가 아침 인사로 꽃 사진을 전송했다.
14. 내장산에 있는 지인이 나의 시간을 잘 읽었다며 독후감을 보냈다.
15. 농촌드라마 <전원일기>의 최초

연출가 선배가 나의 시간을 읽다가 그 내용을 옛날처럼 드라마로 만들고 싶었다고 칭찬 문자를 보냈다.

16. 평창 산속에 사는 친구가 놀러 온 동창들의 모습을 찍어 보냈다.

17. 재래식 화장실 문을 조금 열어 놓고 앉아 있을 때, 자전거 핸들 위에 참새 한 마리가 푸르릉 날아와 앉더니 나를 한참 쳐다보았다.

18. 뱃속을 시원하게 잘 비웠다.

아직 오전에 불과하다. 이따 오후에 접어들면 또 작은 기쁨들이 수북이 쌓이겠지.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 삶의 끝까지 동행하는 일상

수영장에 가고 여행을 떠나는 일을 '별난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전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에 해당했다. 하지만 코로나 세상에서는 수영장 가는 일이 뉴스거리가 되었다. 한국보다 앞서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부분적 일상복귀 조치가 시행된 이스라엘에서 1년 만에 수영장을 찾은 90살 노인이 뉴스에 등장했다. 노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평소 내가 즐겨 찾던 수영장에 돌아오게 되어 기쁩니다."

수영장은 이 노인에게 '일상'속 즐거움과 건강을 주는 곳이었을 것이다. 노인은 그저 원래대로 평소대로 평범하게 일상으로 되돌아갔을 뿐이다.

나도 온천욕이 나의 일상 속에서 꽤 즐거운 일 중 하나였다. 평일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손님이 뜸한 야외온천에서 푸른 하늘과 구름을 올려다 보면서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면 마음까지 정갈해지는 느낌이 참 좋았다. 코로나 발생 이후 그 온천에 못 간 지 1년이 넘었다. 내 일상의 즐거움 하나가 중단된 것이었다. 가끔 그 온천 앞을 지날 때마다 한가한 시간에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고즈넉함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간절한 심정에 사로잡히곤 했다. 다시 마음 편히 그곳에 갈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이전보다 노천탕에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어느 날 한 유명 배우가 TV에 출연해 무척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지금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을 여쭙봤더니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어!"

그 배우의 선친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에서 간절히 떠올린 일은 별난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분은 나무와 숲과 강과 바다가 보이는 어느 여행지에서, 가까운 벗들과 약주 한잔을 마시면서 그저 편한 일상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었던 것이다.

코로나 재앙은 아직도 안심 못 할 수준으로 당신과 나의 일상을 옥죄고 있다. 하지만 그 골치 아픈 감염병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참으로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노인의 간절한 소원 역시 일상이었다는 것은, 코로나가 앞으로 더 오래 머물든 아니든 물러가든 일상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지탱하는 기본 바탕이자 원동력을 뚜렷이 새겨준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93세에 떠나신 나의 이모할머니는 돌아가시던 날 오전까지 텃밭에 나가 평소처럼 일하신 뒤 방에 돌아와 잠드신 채로 영면하셨다. 떠나는 마지막 날에도 '특별할 것 없는 작은 일상'속에 살다 가신 것이다. 우리가 훗날 원래의 일상을 되찾더라도 삶의 기본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삶의 '원형질'은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코로나 이후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언제나 변함없이 동행하도록 하늘이 장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 일상의 범위는 비좁은 편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일상 회복의 범위가 차츰차츰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재의 위축된 일상 속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일상들은 여전히 수두룩하게 남아 있다. 우리는 끝장나지 않았다. 무척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코로나 팬더믹은 '삶의 재발견'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현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각성 시대를 열었다. 우리는 이 새삼스러운 각성을 다시는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아주 작은 일상들로 이루어진 '별일 없는 하루'가 크나큰 기적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별일 없는 하루하루는 당신과 내가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인생은 소소한 하루하루의 집합이다. 당신과 나에게 '오늘 하루'와 '지금 이 순간'이 탈 없이 주어져 있다.



MBC 창사60주년 기념

〈다시 읽는 그때 이야기〉



장명호(편제)

상식을 초월한 상식의 표현은 보는 이에게 기쁨(?)을 선사한다. MBC 사상 초유의 엄청난 경쟁률을 보인 올해 신입사원 선발시험은 한 명이 불기 위해 백 명이 떨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야 말았다. 우수한 젊은이 2백 명이 응시해서 백 명이 합격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으려만, 백대 일이 넘는 경쟁이고 보니 수요 공급의 손익분기점인 BEP(Break Even Point) 산출은 아담 스미스도 케인즈도 손을 들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금년 대학 졸업생이 줄잡아 15만 명, 그중 인문계를 절반이 넘게 본다면 8만여 명. 그중 1만 2천 명이 지원했으니 금년도 졸업생 중 17%가 MBC맨이 되고 싶었다는 얘기다. 31명의 채점위원이 10일간 호텔에 갇혀 하루 14시간을 꼬박 채점에 시달리면서도 직업에 대한 긍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것이 그나마 얻은 수확이라면 수확이겠다.

‘상식’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기 마련이지만 터무니없는 변화도 많았다. 예컨대 ‘黑描白描論’의 뜻을 적는 문제에 대해 ‘강북에 심은 검은콩이 강남에 흰콩이 되어 나온다’라는 뜻으로 부동산투기의 세태를 풍자한 기발한 답이 나오는가 하면, 대간臺諫을 설명하는 답이 ‘태권도에서 서로 상대방을 향해 공격을 취한다’라는, 스포츠 입국의 정신을 보여주는 ‘상식 아닌 상식’을 답안지에 써놓은 수험생도 있었고, ‘요시다 시게루’(태평양 전쟁 이후 7년간 내각총리대신을 지내며 전후 일본의 진로를 결정한 인물)를

묻는 질문에 ‘일본 높은 분명한데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답이 있었다.

‘키엘케골’은 ‘獨日의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답을 써서 그가 독일사람인지 일본사람인지 채점자들로 하여금 한숨을 쉬게 하는 수험생도 있었다. ‘KLM’에 대해서는 ‘킬로, 리터, 미터’라고 쓴 답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 취항하게 될 화란의 항공사로 KLM이 취항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12개국 14개 노선이 개설된다’라는, 모범답안보다 더 정확하게 쓴 수험생이 있어 놀랐다. 올해 상식 문제는 예년에 비해 꽤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게 중론인데도 한 문제만 틀리고 나머지는 채점위원 전원이 조금의 흠만 있어도 잡겠다고 눈을 크게 뜨고 봐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답안지도 있었다.

‘작문’은 『낙엽』과 『마이카』를 출제했는데, 채점위원들의 채점 소감을 종합해 보면 이렇다.

첫째, 요즘 젊은이들의 발상이 매우 단순하고 정형화돼 있다. “가을 하면 낙엽이 생각나고 낙엽 하면 그녀가 떠오르고 그녀는 가을날 백혈병으로 죽었다” “가을 하면 낙엽이요 낙엽 하면 커피가 생각난다. 시험 끝나면 커피나 마시러 가야겠다” “군대에서 지긋지긋하게 낙엽 치우던 생각이 난다” 대개 이런 유형의 전개방법이 너무나 많은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문체와 문맥이 정돈되지 않은 글이 많았다는 중론이다. 이는 요즘 젊은이들이 독서보다 영상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인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나는 불게 물든 가을 산에 올라 산寺에 들

렀다” “나는 지금 교정 밖 낙엽이 될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자기의 윗몸을 마구 흔들어대는 나뭇잎과 함께 떨어진 낙엽, 떨어질 낙엽은 당신도 나와 같으리라”처럼 도무지 문맥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속된言으로” “秋면 생각나는” “心이 약한자들”같은 표현도 있었다.

셋째, 한자와 우리말 맞춤법이 많이 틀렸다. 한자의 경우 자기가 아는 대로 표기한 수험생이 많았다. “題目을 題木”으로, “大學校를 大學教”로, “錦繡江山을 金水江山”으로, “礎石을 初石”으로, “希望을 希望”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가 눈에 띄었다. 맞춤법은 “깨닫고”를 “깨닥고”로, “떨어지다”를 “떠러지다”로, “기웃둥거리다”를 “기우똥대다”로, “꺾매다”를 “꼬매다”로 쓰는 등 대학 졸업생이 맞나 의심할만한 답안지도 있었다.

넷째, 글씨체가 매우 작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방송사에 보내는 엽서를 쓰던 버릇에서 유래됐는지 아니면 남성의 여성화 경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상당수의 수험생들 글씨가 작아졌다. 8절지 한 행에 최고 68자를 쓴 수험생이 있었다. 한 행에 68자라면 신문 활자에서도 뽑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마치 모래알을 깔아놓은 엽서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다섯째, 단편적인 지식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나열된 답안지가 눈에 띈다. 이효석의 ‘낙엽을 태우며’를 인용하면서 김진섭, 정비석, 피천득, 이양하 등 교과서에 나오는 작가의 나열이 많았고,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에는 안톤 체홉, 존 스타인벡, 조지 오웰 등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 밖에 어느 용기 있는 수험생은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이 빠진 상식보다는 차라리 0점을 택하겠음. 죄송”이라고 썼는가 하면 “졸렬한 글을 읽으시느라 고생이 많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라고 최대한 예의를 갖춘 답안지도 있었다.

특히 “낙엽이 되겠습니다(문화방송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낙엽을 태우겠습니다(문화방송을 위해 뛰겠습니다) 재가 되겠습니다(문화방송을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일편

단심 문화방송형 답안지를 보면서는 그토록 속 깊은 충정에 감동(?)하는 시간도 있었다.

3일간의 합숙 출제에서부터 10일간의 단체 채점에 이르기 까지 2주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얼굴 한 번 맞닥뜨리지 못했던 동료, 선배, 후배들 간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게 또 하나의 수확이라고 하겠다.

각자 다른 부서에서 맡은 직종과 정책에 열중하다 보면 타 부서의 일은 백안시하게 되고 상호 비협조적인 습관이 타성화 되다시피 했는데 한 방에 두 세명씩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 우선 모두가 없어서는 안될 MBC맨이라는 인식과 나름대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고, 입장을 바꿔보면 얼굴을 붉히고 싸울 일이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갖게 된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이번 신입사원 시험관리를 담당할 일원으로서 함께 고생한 사우들이 서로 맡은 일은 달라도 어려운 일, 협조해야 할 일이 생기면 다른 경로를 통하기 보다 이번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전화 한 통화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번 합숙 채점 기간 동안 L주간의 끊임없는 보신론에서부터, 통말이 없던 S위원의 조직관리론, C위원의 정계야화, S차장의 세계의 뒷골목, K부장의 출세야합 전법, S부장의 여성보호론에 이르기 까지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경험 많았음을 덧붙인다.

〈1984년 12월 MBC가이드에서 발췌〉

1984년에는 신입사원 채용이 두 번 있었다. 1월 1일자로 76명의 신입사원을 뽑았지만 1986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1월 14일 다시 공채 시험을 봤는데 무려 12,000명이 몰려와 창사 이래 최대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시험을 통해 112명이 12월 15일자로 수습사원에 임용됐다. 이후 ‘84社番’들은 그 숫자만큼 MBC를 위해 많은 활약을 펼쳤고 어느덧 정년퇴직에 이른 나이들이 됐다.(편집자註)



MBC, 영원한 기댈 언덕



이선영(ANN)

“이선영씨는 참 재미난 이력의 소유자로군요”

오래 전 박사과정 인터뷰 날. 상큼한 숏컷 머리가 인상적인 영국인 교수님이 내 이력서를 보고 나서 한 첫 마디였다. 남편 직장을 따라 영국으로 건너와 초등학교 두 아이들을 부려 놓고 동서남북을 조금씩 알아갈 무렵, 번듯한 계획이나 아무진 포부도 없이 그저 내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일 것 같아 지원한 박사과정이었다. 본업은 두 아이의 엄마, 석사 공부한 지는 까마득한 옛날인 이 외국인 만학도(mature student)에게 교수님은 ‘재미있는 경력의 사람이라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MBC에서 선배들은 내게 ‘이선영씨는 공부를 좀 더 하지 그래?’라는 말을 이따금 했었다. 방송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 얘기를 에둘러 했던 건지 아니면 긴 안목으로 자기 계발에 신경 쓰라는 조언이었는지는 선배들만 아시리라. 덕분에 나는 일하는 내내 나와 방송에 대해 그리고 꾸준한 성장이라는 질문을 두고 뜯구름 잡는 고민도 많이 했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한 말씀은 함께 라디오 프로그램을 오래 했던 라디오 오제작국의 선배로부터였다. “이선영씨는 MBC라는 큰 그늘, 기댈 언덕이 없이도 어디서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남편 직장을 따라 영국으로 건너와 산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말과 문화는 물론이요, 생김새 만으로도 확연히 구분되는 우리 네 식구에게 영국에서의 첫 몇 년은 무어든 자급자족해야 하는 새로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헤아려 보니 영

국에서 산 시간의 절반쯤을 나는 공부와 자원봉사 그리고 국립 프로그램에서의 훈련과 교육으로 보냈다. 재미난 사실은, 각 과정을 하나씩 지날수록 나같은 외국인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다. 절반을 웃돌던 석사과정의 외국인 학생 수는 박사과정에서 1/3쯤으로 줄더니, 카운셀링과정에서는 한 손에 꼽을 정도가 됐다. 급기야 의료 공무원으로서 영국의 국립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고위 과정에 선정되었을 때, 나는 동기들 가운데 유일한 ‘해외파’(유럽대륙 너머에서 대학을 나온)에 최고령자였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심리치료 언저리에서 차근차근 한 우물을 파며 걸어온 경력자들이라면, 나는 학부와 대학원 전공은 물론 이력도 전혀 다른 생뚱맞은 연장자였다. 한마디로 영국의 의료 공무원들의 정코스를 거치지 않은 튀는 외국인이었다. 나는 50이 넘어 누군가의 농담처럼 ‘대영제국의 의료공무원’이 됐다. 그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인정되면 나이에 무관하게 채용하고 정년으로 못박은 나이가 없는 이곳의 문화 덕분에 나는 그렇게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다.

영국의 의료제도는 전 국민에 대한 무상의료 체제인 국립보건서비스(NHS)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한 축이 심리치료인지라 이곳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자연스레 도움을 청하고 지역 주치의들 역시 환자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심리치료를 권유한다. 암환자들의 치료에는 물론, 코로나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들, 특히나 최근 ‘Long COVID’라는 진단명으로 분류된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도 심리치료가 후속 조치로 포함돼 있다.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운 나쁜 누군가가 외로이 감당해야 할 고달픈 숙제가 아닌 개인과 지역 사회, 국가가 함께 꾸준히 관리하며 보살펴야 하는 중요한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에서다.

나는 현재 영국의 국립보건서비스에서 다양한 정신적 심리적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불안 장애들, 예컨대 사회성 불안, 건강 불안증,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공황장애, 강박성 충동 장애, 자존감 문제 등이 주

진료 분야다. 특히 자살 및 자해 가능성과 연계되는 질환은 고위험 요소로 구분해 중점적으로 진료한다. 환자들의 주 연령층은 20대에서 60대지만 7, 80대 환자들도 드물지 않다. 영국인과 영국에 사는 외국 국적의 이민자들, 혹은 자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인 정치 경제적 망명 신청자들도 지역 주치의로부터 의뢰를 받아 치료한다. 때로는 영어로는 소통이 어려운 아프리카나 중동 출신 환자들을 통역자를 배석시켜 진료하기도 한다. 그 어떤 환자도 어렵지 않고 신경이 덜 쓰이는 경우는 없지만 내게 특별한 책임감을 주었던 환자들은 심리 치료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상태로 외부의 진료 의뢰를 따라 오는 사람들, 바로 탈북자들이다. 이들은 제3국을 통해 영국으로 넘어 온, 우리말 만이 가능한 언어 장벽에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긴급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었다. 탈북 과정 전후로 경험한 트라우마와 그 이후의 불안정한 생활의 후유증으로 심리 치료가 절실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 엄청난 고통을 고스란히 몸으로만 견뎌내고 있는 중증 환자들이었다. 한국에서였다면 만나지 못했을 탈북자들을 영국 땅에서 우리말로 진료할 수 있었던 경험은 내게는 남다른 의미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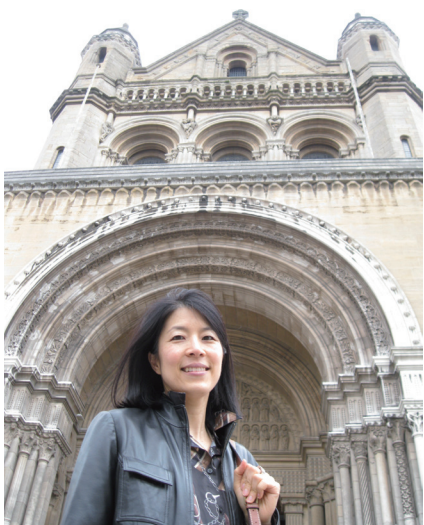
영국이 코로나로 허우적대기 시작했던 2020년 3월 말, 내가 몸담은 국립보건서비스 내의 모든 대면 심리치료는 컴퓨터를 통한 원격 영상진료로 급작스레 전환됐다. 이 글을 쓰고 있는 6월 말 현재, 코로나로 환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서 원격진료하기 시작한 지 15개월이 되었다. 환자 관련 기록이라면 자그마한 메모지 한쪽도 외부 유출이 금지되고, 사무실 밖에서는 업무 컴퓨터와의 연결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국립보건서비스의 시스템이 코로나에 맞춰 삼시간에 바뀌기 시작했다. 3중 4중 안전 장치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집에 앉아 화상으로 하는 원격진료가 시작됐다. 집에 업무용 컴퓨터가 없는 직원들에게는 재택근무용 랩톱과 업무용 책상, 의자 그리고 기본 용구들까지 모두 택배로 보내줬다. 전 시 상황 같았다. 진료 방식이 전면적으로 바뀌자, 대면진료의 차선택



2016년 남편의 호암상 수상식장에서 (좌로부터) 이인용, 황선숙, 박영숙, 이선영, 차인태, 윤건호, 김명식(남편)

인 원격진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와 규정들이 속속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진료실에 마주 앉아 환자들의 표정과 눈의 세밀한 흔들림 그리고 숨결을 감지해가며 진행하던 진료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일선 진료자인 우리는 원격진료 효과를 극대화할 방식과 질환 별 개정된 치료법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거의 매주 받았다. 자고 나면 더 좋은 방식, 더 나은 접근이 발표되는 식이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전대미문의 상황에 숨가쁘게 적응해 온 것이 지난 1년 여의 시간이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 모두는 나에게 새로운 우주이자 귀한 인생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선생님들이다. 환자들아 견뎌온 아픔과 고통을 마주하노라면 나는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어처구니없는 인생의 질곡이 매일 새롭게 야속하다. 그러길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애쓰고 있을 내 환자들의 삶에 대한 우직하고도 정직한 노력 앞에 나는 깊은 존경의 마음을 여민다.

영국에 건너온 이래, 어디서 무엇을 하건 남들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더 많이 노력해야 했던 나의 공부와 일들이 이제는 매일 나로 하여금 배우고 또 성장하게 도와준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제 와보니 나는 오래 전 라디오제작국 선배의 덕담이자 당부를 절반은 지키고 절반은 못 지킨 셈이 됐다. 내 젊은 날의 14년이 담긴 멋진 첫 직장 MBC는 내게 영원한 기댈 언덕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MBC의 선배님들과 동료들로부터 배운 한국식 성실함과 든든한 기초 덕에 나는 오늘도 영국에서 환자들을 열심히 진료할 수 있다는 것. 말씀으로, 프로그램으로 때로는 일하는 자세로 나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던 자랑스런 MBC의 모든 선배님들과 동료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뒤늦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사우회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음악의 페르마타〉

오랜만의 위로
- 마리안 앤더슨

유혜재(편제)

20세기의 대표 알토 마리안 앤더슨(1897-1993)이 어느 날 공연여행을 갔다가 만난 여학생에게 사인을 해줬다. 돈이 없어서 자신의 음악회에는 못 온다고 하자 앤더슨은 그 자리에서 『아베마리아』를 나직하게 불러줬다. 자신도 가난했었기에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의 마음을 알아채고 노래로 위로해준 것이다. 혼자서 세계적인 성악가의 노래를 들은 여학생은 그 감동을 일생 잊지 못했으리라.

그 앤더슨이 6.25전쟁 때 피난민의 도시 부산에서 무료공연으로 시민들을 위로해줬던 사실을 몇 년 전에야 알았다. 휴전을 두 달 정도 앞둔 1953년 5월, 주한 미군을 위

해 방문했던 앤더슨에게 전쟁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수락했다. 제3육군병원 앞뜰에 설치한 가설무대에서 부른 그녀의 노래, 가난과 흑인으로 박해를 받은 설움이 녹아 있는 노래들은 전쟁의 공포와 폐허를 피해 타향으로 피난 와서 상처와 궁핍에 지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

필라델피아 빈민가에서 태어난 앤더슨은 백화점 냉동실 노동자였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의 노동으로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다. 6세부터 교회 성가대원으로 재능을 발휘하며 음악을 공부했는데 음악학교에 지원했지만 흑인이라서 낙방했다. 1925년 뉴욕 필하모닉이 후원하는 콩쿨에 합격해 뉴욕 필의 독창자가 됐지만 인종차별을 못 견뎌 유럽으로 갔다.

1935년 잘츠부르크 음악제에 흑인 최초로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당시 공연을 본 토스카니니는 “그녀는 백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소리를 갖고 있다. 오늘 그녀를 만난 것에 대해 신께 감사드린다”고 극찬했다. 1941년에

는 필라델피아 시민에게 주는 ‘보크상’ 수상자가 되어 받은 상금 1만달러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

내가 앤더슨의 이름을 알고 흠모하게 된 지도 70년이 넘었다. 6.25가 일어났던 해 겨울, 9.28수복 후 피난지에서 고향에 돌아왔다가 빨치산 출몰 때문에 다시 외가로 피난을 갔었다. ‘고향 친구들은 학교에 다닐텐데..’라고 생각하며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며 지냈다.

외가 다락에는 외삼촌이 중학생 때 읽은 낡은 소설책들 - 춘원 이광수의 소설과 세계명작소설 - 이 몇 권 있어서 심심하면 몇 장씩 읽곤 했다. 그런데 나중에 서울에서 오신 당숙이 내놓은 책은 달랐다. 잉크 냄새가 나는 새 책으로 제목은 『미국을 움직인 8명의 위인들』이었다.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강철왕 카네기, 헬렌켈러, 마리안 앤더슨 등에 대한 진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귀가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면서도 설리번 선생님의 지도로 대학 교육을 받고 인류를 위해 공헌한 헬렌켈러의 이야기는 전쟁 공포의 위협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

아갈 투지를 줬다. 마리안 앤더슨의 노래는 들을 수 없었지만, 흑인으로서 가난하게 태어나 갖은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한 얘기는 피난지에서 주눅 들고 전염병까지 유행하던 암울한 시간을 보낼 때 위로와 함께 밝은 통로와 화려한 환상도 갖게 해줬다.

작년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의 따뜻한 노래를 듣고 싶었다.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처지였다. 6.25 70주년이 되는 해에 어려서 겪은 전쟁의 공포가 생각나서 더 그랬다. 풍부한 저음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따뜻하고 유연한 흑인영가, 노예처럼 절망적인 생활은 아니지만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흑인들이 신앙과 피안의 세계를 노래하며 지친 영혼을 달랠다는 노래들이 듣고 싶었다. 유튜브에 그의 노래 ‘나는 때때로 고아처럼 느낀다’가 있어서 반가웠다. 흑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안식을 느꼈다는 바로 그 노래다.

“나는 때때로 고아처럼 느낀다.

마치 집에서 멀리 멀리 떨어져 나간 것처럼 주어

아주 아주 멀리 집에서 떨어진 것처럼”으로 시작되는 노래. 참으로 오랜만에 위로를 받는 것 같았다.



마리안 앤더슨

CHUNGHO 청호나이스

이제, 얼음수도 언택트

손대지 않아도
깨끗한 물과 얼음이
나 온 다

언택트